

평가 설문지...

## 1. 핵심적인 여성정세

실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잘 알진 못하겠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거엔...

전여대협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의 자주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있겠구요, 정대협을 중심으로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과 고이즈미 신사참배, 방안으로 인하여 대중적인반일투쟁으로 확산되었던 면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들어 성매매나 성폭력의 대한 여론형성이나 법제정이 이루어졌지요, 성과와 한계를 봐야 하겠지만요... 그리고 농협에서 있었던 여성농민들의 투쟁도 눈에 띄는 여성민중의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노동자의 문제에선 생리휴가 폐지의 문제가 있었구요... 반미투쟁의 경우에는 반미투쟁이 대두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여성에 대한 미군의 착취를 놓고 형성되었다기 보단 전반적인 반미투쟁이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간에 대한 여성들의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통해 반미의식이 형성되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2. ▶대중투쟁

### 1) 6.15이행 투쟁

여성단체나 전여대협의 대중투쟁이나 사업에서의 성과는 있으나 아직까지 중앙 중심의 투쟁과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면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통일이라는 것을 쉽고 가볍게 느끼고, 6.15공동선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실천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부터가 형식적이 사업과 투쟁으로 바라보고 통일에 대한 확신과 대중에 대한 믿음부족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의조직화 하지 못함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의식을 보았을 때는 앞으로의 긍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 2)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및 일본의 역사 왜곡저지 투쟁

성과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의 잠재적인 반일의식이 엄청나게 폭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내에서도 설문지등의 작은 실천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단지 일꾼들이 학우들의 의식만큼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여 이것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이즈미 방한이후로 흐름이 끊긴 것이 아쉽습니다. 일반학우들도 한참 시끄럽더니 지금은 너무 잠잠하다면서 문제의식을 표출하기도 하더라고요. 지속적인 투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3) 기지촌 문제 미군범죄 문제해결과 반미투쟁 관련

저희 학교에서도 새문터 후원사업과 같은 자근자근한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미투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였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정도의 알림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미투쟁에 대한 학내의 큰 흐름을 만들지는 못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고민도 잘 되진 못했구요... 저희 학교는 기지촌활동은 작게나마 지속적인 활동을 했지만은 봉사활동적인 차원이 컸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내용과 활동으로 확산시킬지가 나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4) 반가부장제 투쟁

일상적인 선전활동등으로 반가부장제 사업을 진행했으나, 지속성은 떨어졌습니다. 반가부장에 대한 여론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서 일상적인 대화속에서도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였으나, 걸리지지 않은 엄청난 성에 관한 지식이 난무해서 인지 학우들의 의식이 참으로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의 목소리로 형성하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떤때는 학우들에 비해 일꾼들의 지식이 상당히 떨어지고 퇴보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 5)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

여성민중의 의식이나 실천력이 예전에비해 급격히 상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를 보았을적엔 이에 많은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우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연대투쟁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취업등과 같이 학우들 실제 접하고 있는 생존권에 관련된 투쟁을 고민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 ▶대중사업

사실 잘 참여하지 못해서 평가한다는 게 모하네요!!! 총회나 출범식을 보았을 때 부족한 면은 존재하지만은 통크게 자체적인 사업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속에서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애착과 조직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반 성과 한계 과제

통크고 자체의 힘으로 투쟁과 사업을 일구어 나갔다는 점에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속성이(특히 기층에서) 부족하고, 대중의 의식과 활동에 비해 일꾼들의 준비정도와 활동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회의 대중력과 조직력이 미약하다보니 큰 육식을 내긴 힘들었지만은 작지만은 킨 호흡으로 투쟁과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3. 사상생활

혹후, 사실 거의 전무하네요!! 앞으로 사상적인 부분이 더욱 요구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꾼들 학습도 초반에만 이루어지구요...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계속 부딪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 4. 조직생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초반에만 이루어지구요... 사실 일꾼도 없었걸랑요!!

## 5. 총여학생회 대의체계 관련 평가

기층이 무너져서 총여 중운위를 운영할 수 없었어요!! 총여 중운위가 없다보니 총학 중운위를 통해 총여사업을 알리고 논의하려 했으나 총학 중운위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학 중운위가 부족하다보니 총여가 전체사업을 같이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6. 일꾼 재생산 과정 평가·계획과 실천 과정에 대한 총화를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2학기 들어서면서 소모임이 운영되었습니다. 새내기가 1학기때 묶이지 못함으로 소모임을 통해 새내기를 조직화하려 했지요. 그나마 총여 두리로 새내기가 모이긴 했지만은 인간적으로의 관계에서 그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소모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 7. 전여대협 사업계획 수립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

지속적인 하방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저희 단위의 수위가 많이 낮춰져서 활동하다보니 사업을 소화하기는 데 어려움이 나섰습니다.

## 8. 상층간부의 지도사업 평가

7번과 별반 다르지 않네요. 총여가 제대로 움직이는 게 없다보니 지도하는 간부도 어찌해야 할지 망막했을꺼란 생각이 들어요.

## 9. 여학생 운동대중화 평가

여학우들의 여학생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수준이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점들도 많았으나 조직적이 체계차체가 미약(?)하다보니 개인적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힘이 실리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 10. 총여학생회 조직적으로 올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까? 평가를 했다면 평가 내용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라서 평가는 못하고 혼자서 생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조직적인 선을 형성하면서 의조직화하지 못한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여라는 중앙체계를 유지하려고만 하다보니 없는 간부에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었어요. 기층을 강화하고 총여차원의 큰 사업보다는 기층에서 학우들과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고 기층을 세우고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사업을 하려다 보니 사업중심으로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학우들에게 총여가 아직 살아있구 활동은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총여로 있진 못했던 것 같구요.

“ 평가 잘 하시구요, 멋진 전여대협이 되길 바래요!!!”



## <대중투쟁>

대중투쟁의 방법 투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프락치비 여성들에게는 한해동안 교미 잘 되지 못했다. 시기별로 해지적인 투쟁관을 가져왔다.

## <대중사업>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일꾼들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전여대협의 대 사업이다. 백여명도 채 되지 않는 일꾼들이 모인다는 것에 참 기분이 아프다. 그럴때일 수록 단위에서 사업과 투쟁을 더욱 잘 벌여내야 하겠다는 다짐을 몇번이고 하곤한다. (대담이업음)

일꾼들의 교양정도를 높이기위한 활동이 많았던 한해였다. 특히나 수련회때 강연 평화들은 많은것을 얻어갈수 있었던것 같다. 단위에서부터 중터 많은 일꾼들이 전여대협 대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투하 하여야겠다.

1. 조직생활의 기법들을 잡지못하던 한해였던것 같다. 기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조중계가 잘 되지 못했다. 대중사업이 눈앞에 닥쳤을 때에는 어느정도 조중계가 되는가 싶지만 사업이 끝나고는 흐지부지 되었던것이다 몇번이다.

3. 합음이 일상적으로 전해되지 못했다. 합음에대한 정념이 세워지지 않는데 대한 고민이 많았던 한해였다. 조중계시간이면 잡게나마 정념을 대담하강의를 일은정도가 합음의 전해이다 이에게 개부 개인에게 합음에 대한 요구를 했었다. 그리고 자여를 정원한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던 일꾼들에게 고민을 만들어 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5. 중여 중요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여와 단위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행하지 못했다. 이것이 중요우가 제대로 대시못한 이유인것 같다.

6. 일꾼재능을 위한 선연임. 새내기사업을 한해내내 중심적으로 고민했었다. 비록 선연임을 전행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았지만 새타를 중심으로 모아진 새내기들을 일상적으로 만나았던 고민이 있었다. 지금까지 선화정의를 높여 중여에 모이는것이 전부였다면 이후에는 합과 선자를 대담한 이들을 세워내야 한다.

7. 중앙단위의 사업계획이 단위의 모든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전여대협이 정계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단위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 못하고 중앙의 사업계획이 단위의 사업에 일일이 지배한다면 단위의 자활정의를 커워낼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 이 방향

8. 중앙의 일꾼이 부족해서 단위지대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다. 전여대협 일꾼들이 관중에서도 합체적으로 나아가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수고해준다고 전한다.

지역의 여학생 운동이 침체되었던 을해 전여대협의 지도인 지역의 일꾼을 모아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9. 여학생운동을 고민하는 일꾼들의 해설과 전문성만이 형식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것이다.

10. 대항에서 조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후에 비판드리겠습니다.

여남대 참여  
원하 / 7기 전여대협 평가

1. 호주제의 부당성에 관하여 시민들의 지지가 많은 한해였다. 대학에서 느끼는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작년의 경우 호주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호주제를 화제거리로 삼은 경우도 거의 없었다. 또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로 같은 형제인데 성이 다른 경우 호주가 어린 아이인 경우)이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극히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 올해는 호주제가 무엇이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사례는 어떠한지를 알려내는 성과가 있었다. 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활동은 적었다는 생각이 든다. 꾸준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완전 해결되고 기존의 사고방식이 함께 바뀔 때야만이 진정 호주제 폐지임을 알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대주투쟁

6.15공동선언이후 쌓아 왔던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그간의 성과점들조차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고 있다.

올 한해 여성들의 움직임은 활발했다. 자주교류, 방북, 토론회 등등. 하지만 이러한 성과점들이 일반 시민, 학우들과 함께 가져간 것이었던가 하는 고민이 든다. 또한 특화된 한 부문별로의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역사왜곡 문제로 전체가 떠들썩하였다. 모든 국민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안부문제가 그 중심에 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일반학우들도 동의한다. 다만 그정도과 이남의 대처방법에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자신의 현실을 연관시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취업에 관한 고민은 이제 저학년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접근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 대중사업

#### @겨울 일꾼 전진대회

한해를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큰 틀거리느 비슷하였고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여대협의 요구를 알 수 있어 받아안을 수 있었다.

#### @출범식

깊은 고민은 하지 못하였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이 급하였다. 풀러가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피상적으로 알게 되었다.

#### @여학일꾼마당

구체적 상은 떠오르지 못하였으나 사업의 방향과 학우들에게 다가가야 할 고민을 하게되었다. 또한 학우들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겠다는 고민을 던져 주었다. 학우와 함께가는 학생회여야함을 생각했다.

통일에 왜 여성이 함께 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 3. 사상생활

4. 조종례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결국 사업성 위주로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조종례 또한 마찬가지였다. 총화는 개인적으로 총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모든 간부가 함께 흐름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만들어 내었다. 새내기학교, 대동제등 대중사업의 진행정도를 주고 받는 조종례가 많았다.

### 5.

6. 소모임에 대한 모임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새내기들과는 개인 친분관계에 우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떤 묶일 수 있는 소모임을 제재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묶여지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여 새내기끼리의 사립이 적었다는 한계가 보여지며, 선배를 통한 만남이 있어 지양해야 할 것이다.

7. 학우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 일꾼들의 고민이 더 반영된 사업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학우들의 생각에 더 접근해야하고, 채워주어야 할 부분에 있어 다가가는 여학생회가 되어야겠다.

단위의 정도에 따라 전여대협의 고민이 다르게 고민되었다. 사업보다 먼저 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잘 풀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든다.

8. 간부들 스스로 알고자 하는 노력과 학우들의 이해와 요 전여대협의 이해와 요구를 잘 풀어야 한다. 상층간부의 지도사업이 단위의 상황을 잘 알고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9. 여학생들의 운동대중화는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운동은 현실의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여학생이 아직 필요에 대한 전방기 이해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전여대협 평가 설문

### 진반 성과 한계 과제

#### 3.사상 생활

##### 학습 진행 형태 및 내용 총화

-크게 집단학습과 소조학습 개인학습으로 진행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었다. 스스로가 학습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고 이것은 학습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소조 학습 같은 경우에는 소조구성원들을 강제하지 못하고, 교사의 불성실함이 원인이 컸다.

자여론 정립을 위한 토론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지점

-단위에서의 말은바 분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않아서 전체적 진행이 많이 늦었다. (아직 정리가 다 안된 것 같던데) 그냥 안된 것 같다. 사실 대중적으로 보급하지 못한것도 있지 않을까....(학우들에게 공개 하는것은 어려운가? ??) 여학일꾼들이 함께하는 것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주체는 같이 고민도 하고 하는데 단위에서 잘안되어 그런거겠지요...

#### 4. 조직생활

조·총회를 기본으로 한 조직생활이 철저히 되지 못했다. 조직생활의 기본은 조·총회를 통한 매일의 계획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직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이나 생활 전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서로간의 공유정도도 낮았다. 적은 수의 일꾼들로 많은 투쟁과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 한명 일꾼의 모습이 그 어느 단위보다 중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일꾼이 적은 객관적인 실정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과 투쟁들을 해내는 모습이 있었다. 총여학생회는 민족동아 여학일꾼을 지도하는 중앙으로서 단위 여학생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속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름방학 중에 인문대 여학생부장, 법대 여학생회 회장님을 전여대협 통일선봉대로 결합시키고, 총여학생회에서는 민족공동행사 추진위원회를 건설하고 경영대 여학생회와 정연하고 안정된 조직생활을 해보으로써 많은 성과를 낳았다. 이때 주총회를 진행을 하고, 여학일꾼들만의 월 총회보다는 전체 중앙과 함께하는 월총회를 진행 하였다.

#### 5. 총여학생회 대의체계 관련평가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라 함은 총여학생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각 단위 여학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진행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만큼 여학우들의 처지와 고민을 좀더 깊이 고민하고, 전체적인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 뿐아니라 민족동아 전체의 사업, 투쟁, 모든 사안에 대하여 총화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운동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많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과 총여학생회의 내용을 쉽게 풀어낼 데 대한 고민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중앙운영위로 풀리는 내용보다 중앙간부들의 논의 속에 결정된 사안이 많아서 책임성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중앙운영위 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지 못한 것은 크게 반성할 지점일 것이다.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여학생 운동의 핵심으로, 대표자로 세워내는 또다른 투쟁의 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여대협을 계획 했으나 세워지는 기층 단위가 없어 포기했다.

#### 6. 일꾼 재생산 과정 평가, 계획과 실천 과정에 대한 평가

소모임운영: 처음에는 단위 여학생회 모두에 소모임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으나 3월에 건설되고, 일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활하게 소모임을 만들지 못했다. 경영대 여학생회의 햇살같은 경우 정체성을 잃어가고, 구성원들의 운동에 대한 불신으로 잘 진행 되지 못했다. 총여학생회에서도, 햇살을 처음에는 전여대협 총회와 총여 출범식으로 잘 묶어 났으나 후속 사업의 부재로 아이들을 잘 챙겨 주지 못했다. 학습은 햇살 창립기 선배가 함께 하기로 했으나 2학기부터 잘 진행이 안되었다.

일꾼 재생산: 여학일꾼들을 여학생 운동가로 단련하기위한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에 시기별로 일꾼 총화대회와 월별 총화대회, 여학일꾼 교양대회를 진행하였다. 시기별로 제때 실행되지 못하고 준비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여학일꾼들을 한두리로 모아내고 스스로 여학일꾼임을 자각하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소모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단위 여학생회 건설이 어렵게 되었다. 이는 내후년 총여학생회 건설에 있어서도 문제로 나서게 될 것이다. 아직 남아 있는 여학일꾼들을 제대로 추스려서 조직 사업을 진행해야 할것이다.

#### 새내기 사업

<새내기 여학우 예비학교>

여학우 새내기들이 대학의 첫발을 내딛기 전 여학우로서의 자주성을 더욱더 발양시켜 내기 위한 총여학생회의 첫 사업이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타단위 일정과 겹침, 우편발송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내기를 한 명도 조직화하지 못한 큰 과오가 있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지도선배들을 조직화하고 체대 여학생회 일꾼들과 끝까지 자리를 가져가며 진행한 것은 성과지점이다. 그러나 이후 대체할수 있는 새내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 7. 전여대협 사업계획 수립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정세와 기층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되었습니까?

시기에 맞게 여학생운동 대오들이 꼭 해야할 할 지점을 잘 짚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지점이 많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제출되는 '이렇게 해야할 것이다'라는 당위성은 정세를 안다면 당연히 고민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학교단위에서는 잘 고민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너무 상세하다 할 수 있는 고민이 들더라도, 일꾼이 적고 핵심이 별로 없는 학단위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층의견 수렴 정도, 바라는 점

기층에서 올라오는 의견은 대체로 전여대협에서 빨리 접수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좀 늦은 감 있게 제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여름농활의 경우 학단위에선 준비해 들어가는 흐름이 빠르고 전여대협에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전여대협(물론 일꾼이 적고 열악하다는 것은 압니다만..그것은 일단 제껴두고)에서는 겨우 자료집을 만들어 낸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올해 전여대협 총회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전여대협 간부들이 늦게 들어서 자체적으로 전여대협에서 요구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늦었고, 연대사업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반성지점이 있습니다. 바라는 점이라면, 조금 힘들더라도 먼저 고민제출을 해서 대학에서 제대로 된 흐름을 만들어낼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집행 정도

전여대협 사업계획서에 제출되는 내용은 최대한 결사관철하려는 자세였습니다. 의장님을 배출한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어느 학교가 하겠냐는 생각이 모두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말안듣는 단위 여학생회 일꾼들은 좀 안그랬지만요, 한총련 사업계획서에 제출되는 내용은 총학생회에서 흐름을 주도하는 내용이나, 총여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서 정세토론만 하고, 주로 전여대협 사업계획서를 토론했어 학단위 사정에 맞게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

어려움이라면 일꾼이 부족한 어려움 말고는 별로 없지않을까요?

또 있다면,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투쟁을 여학운동 대오만의 투쟁이라고 판단하는 골간일꾼들 때문이겠지요. '뒤통수면 되노'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할까요. 우리 여학일꾼 또한 혼자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골간일꾼 전체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몇 명 안되는 일꾼들이 모든 것을 다하려고 꺾꺾대다가 성과를 잘 남기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우리는 모두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걸린 것은 아닐까요? - 동아대 여학일꾼들이 힘이 모두 썬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골간 단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8. 상층간부의 지도 사업 평가

몇 명도 되지 않는 일꾼들이 서로 분공을 잘 해서 많은 성과들을 남겼던 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전여대협 의장님을 비롯한 간부언니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방단위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정말 동지들 한명 한명의 운명을 고민해주었던 ㅇㅇ언니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잃어 대학간부들과 친해지는 품성 등 전여대협 간부들을 흠잡을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구지점이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중구난방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대할 때에 상층 간부가 문제의 핵심지점과 돌파구들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여성정세를 좀 더 꿰뚫어서 단위 간부들이 여성정세를 놓치지 않고 여성민중의 요구를 받아안고 투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어려운 요구죠?

#### 9. 여학생 운동 대중화 평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학우들은 아직도 기지촌이나 위안부 문제를 어찌면 나와 상관없는 남들의 문제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학우들의 자주성을 높여내어야 할 우리의 몫이겠지만 투쟁과제나 방도에 있어서 조금 더 학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규제학칙에 대해, 그리고 성폭력 해결에 대해 고민과 수준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의 내용이 가장 학우들에게 와닿는 것이라면 민족동아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부분이겠지요. 이것이 평가내용과 별로 상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에 대한 지도사업을 많이 부탁드리구요. 전여대협도 연구사업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단위여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부족하고, 자기 정체성을 잘 찾지 못해서 1년 짜리 여학생회 여학생부장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점차로 열악해지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학생운동인자들이 없다면 여학생운동도 없지요.

## 10. 17대 민족동아 총여학생회 평가

### 0. 들어가며

평가사업은 성과를 내실있게 끝내고 그 성과를 더 나은 방향으로 계승하며, 한계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나가며 자주적 학생회의 나아갈 방향을 바로 내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6대 총여학생회를 평가는 2002년 민족동아 자주적 여학생 운동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답습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학우대중을 자주적으로 세워낼 데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학생회의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자주적 학생회는 학우대중에 근간하여 세워지고 운영되며, 학우들을 중심에 두고 투쟁과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평가를 통하여 계승·발전시켜 나가며, 한계점의 원인을 찾아 해명하고 근본적 문제에서부터 극복을 해나가야 한다. 평가사업이 더 이상 형식적이고 공허한 메아리라는 생각을 지우고, 평가로부터 학우들의 요구와 학생회의 전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1. 조직적 영역에서의 평가

#### 1) 총여학생회의 조직생활에 있어서

조·종례를 기본으로 한 조직생활이 철저하게 되지 못했다. 조직생활의 기본은 조·종례를 통한 매일의 계획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직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이나 생활 전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서로간의 공유정도도 낮았다. 적은 수의 일꾼들로 많은 투쟁과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 한명 일꾼의 모습이 그 어느 단위보다 중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일꾼이 적은 객관적인 실정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과 투쟁들을 해내는 모습이 있었다. 총여학생회는 민족동아 여학일꾼을 지도하는 중앙으로서 단위 여학생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속에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름방학 중에 인문대 여학생부장, 법대 여학생회 회장님을 전여대협 통일선봉대로 결함시키고, 총여학생회에서는 민족공동행사 추진위원회를 건설하고 경영대 여학생회와 정연하고 안정된 조직생활을 해냄으로써 많은 성과를 낳았다.

#### 2) 기층단위 강화에 있어서

여학일꾼들을 여학생 운동가로 단련하기위한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에 시기별로 일꾼 총화대회와 월별 총화대회, 여학일꾼 교양대회를 진행하였다. 시기별로 제때 실행되지 못하고 준비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여학일꾼들을 한두리로 모아내고 스스로 여학일꾼임을 자각하는 공간이 되었다.

단위 여학생회에 대한 하방에서 집중하방의 날을 선정하고 하방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상반기에 잘 진행되었고 점점 형식화되는 모습이 있었다. 단위 일꾼들의 총화를 먼저 해내고 동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선차적으로 하기보다는 의무적인 하방활동과 사업적인 내용을 알려내는 데에 급급하게 된 점이 있었다. 단위 하방사업은 단순한 방문이나 사업·투쟁의 해설 작업이 아니라, 기층일꾼들을 총화하고 지도함과 동시에 사업과 투쟁에의 합의과정과 실천을 이끌어냄으로써 여학생 운동가로 한층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에 대한 평가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라 함은 총여학생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각 단위 여학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진행되는 최고 의사결정회

의인 만큼 여학우들의 처지와 고민을 좀더 깊이 고민하고, 전체적인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 뿐아니라 민족동아 전체의 사업, 투쟁, 모든 사안에 대하여 총화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여학생운동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많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부분과 총여학생회의 내용을 쉽게 풀어낼 데 대한 고민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중앙운영위로 풀리는 내용보다 중앙간부들의 논의 속에 결정된 사안이 많아서 책임성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중앙운영위 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지 못한 것은 크게 반성할 지점일 것이다.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여학생 운동의 핵심으로, 대표자로 세워내는 또다른 투쟁의 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4) 골간 사업에 있어서

7기 전여대협 의장님을 힘있게 배출하는 과정에서 골간과의 방중 간담회의 성과로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내고 법대, 인문대 여학주체를 세워내는 조직적 성과로 귀결되었다. 이를 필두로 전여대협 총회, 총여학생회 출범선언대회, 농활 등에서 선차적으로 총여학생회 사업을 알려내기 위한 간담회 등을 사안별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성과점이 있다. 하지만 전여대협 총회를 준비하며 골간과의 단위간담회 속에서 사업적으로 제안하고 논의하면서도 각 단위의 역할과 활동 마련이 부족한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스스로없이 골간일꾼들을 만나는 것은 여학생 운동의 이해를 높여내고 총여학생회가 중앙단위로서의 자리매김을 더 굳건히 하며, 결국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2. 사상적 영역에서의 평가

올 총여학생회의 사상영역에서의 과제는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모든 여학일꾼들이 무장하여 민족동아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사상학습에 있어서 집단학습은 상반기 총여학생회 조직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적 문제와 계획성 부족으로 그때그때 진행된 것 많았다. 하지만 조·종례 전 명인학습 속에서 사상적 진리를 얻는 과정이 있었다. 개인학습은 일꾼들 스스로가 자각력을 가지고 강제하지 못한 점과 이를 점검, 총화하지 못한 점이 비판점으로 남는다. 소조학습에서 사상학습 수준에 맞추다 보니 너무 많은 소조가 있어 소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책임감있게 소조를 담보해내지 못했다.

학습이 잘 진행되지 않은 데는 먼저 학습에 임하는 주체들의 반성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 속에서 우리사상을 더욱 튼튼히 하고 무장하여 실천투쟁으로 드러내며 우리 운동의 대중화로 이끌어 내야한다. 학습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정치적 생명력을 갉아먹는 해이며 학우들에 대한 책임감 부족이라는 것일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3. 대중적 영역에서의 평가

▶ 총여학생회의 대중의식화는 학우들에게 여학생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5대 총여학생회에 이은 여대생 신문 제작으로 총여학생회 사업을 알려내고, 총여학생회 사업을 기획할 때 역시 학우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여 총여학생회의 인지도를 많이 높여냈다고 평가된다.

상반기 반미 대 토론회에서 여학단위에서 준비호름을 같이 하면서 햇살과 그 주변의 학우들을 함께 묶어낸 것에서 조직적 성과를 남기도 했다. 여름 방중 때 사하지구 통일 한마당을 열어내면서 사하사랑 여성회와 함께 손잡고 모범적으로 준비해내고 햇살을 조직화내는 모습으로 학우대중을 한명한명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었다.

부경여대협에서 여름방중에 지속적으로 진행하던 1인시위의 총화지점으로 진행했던 반일집회는 총여학생회의 자체적인 준비로 시작하여 많은 골간 일꾼들과 대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해낸 것도 큰 성과이다.

학우대중을 만나가는 데 있어서 학우들의 눈높이를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그 눈높이에 맞추어가며 더 높은 눈높이로 이끌어내고 건인해내야 할 것이다.

#### ▶ 핵심사업 평가

<월별 반미주간>

어느 때 보다 총여학생회에서 발빠르게 정세를 주동에 펼쳐낼 데에 대한 고민이었다. 하지만 일상적 사업으로서의 고민이 부족하였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위를 높여낼 것에 대한 고민이 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운동대중화에 기초한 월별 반미주간이 반미주간부터 건강관 대학촌 만들기까지 흐름을 잡고 진행한 것은 성과지점이다.

#### <새내기 여학우 예비학교>

여학우 새내기들이 대학의 첫발을 내딛기 전 여학우로써의 자주성을 더욱더 발양시켜 내기 위한 총여학생회의 첫 사업이다. 하지만 날 짜선정에서 타단위 일정과 겹침, 우편발송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내기를 한 명도 조직화하지 못한 큰 과오가 있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지도선배들을 조직화하고 체대 여학생회 일꾼들과 끝까지 자리를 가져가며 진행한 것은 성과지점이다.

#### <한총련 대의원 대회>

조직화에 있어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 하지만 여학일꾼이 미 대사관 진격투쟁의 선두에서 나선 것은 모범이다.

#### <총여학생회 출범선언대회>

16대 총여학생회의 출범을 1만 여학우와 함께 힘차게 선언하는 자리였다. 전단위로 들어가 사업의 의의 해설부터 조직화를 해냈다. 단 위별 새내기 문예단을 모집하여 진행하고 여학일꾼들을 묶어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새내기 의식화 사업에 힘을 크게 쏟지 못한 점이 있기도 했다. 출범선언대회는 여학일꾼들과 민족동아 1만 여학우와 만들어가는 자리였고 3년만에 성사 해내는 큰 성과를 안았다.

#### <농활>

총여학생회에서 분반주체를 모아 교양을 진행하였으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단위 실정에 맞는 고민이 진행되지 못했다. 분반주체들과 함께 여성농민분들과 가졌던 여성농민 간담회는 성과점이 미흡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이후 농민학생 한마당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각 마을에의 하방에서도 총여학생회를 좀더 알리고 이해를 높여 내는 적극적 행동이 있었다.

#### <건강한 대학촌 만들기>

건강한 대학촌 만들기를 이번 기획하는데 있어서 의의와 목표설정이 명확히 잡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마당과 수요집회를 준비 했는데 거리마당에서는 반 성폭력 마당과 반 가부장제 마당을 기획했다. 학우들이 그 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준비했고 이에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총여학생회가 학내 성인식 개선과 건전한 학내 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문화운동인 '여성깨기'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였다. 여학우들 안 의 소극성과 나약함을 스스로 떨쳐버릴 것에 대한 제안으로 진행되었고 남학우, 여학우들의 반응 또한 흥미있고 관심있게 진행되었다. 수요집회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완전해결,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를 위한 수요집회라는 제목으로 진행하였고 총여학생회가 주체하고 국문학과의 사학과, 다른 단대 학생회와 함께한 집회였다. 총여학생회 자체적으로 진행한 집회라는 데 의 의가 크다.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총여학생회 간부의 부재로 흐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다.

#### <전여대협 수련회>

여학일꾼임으로 무조건 가야 한다는 '당위성'만으로 조직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든다. 사전 충분한 교양 속에서 조직화하지 못 한 것 같다. 여학생회 일을 하면서 또는 여학생 운동을 하면서 알면 좋을 내용이 가득한 수련회였지만 주체 결의의 부족으로 행사내 용을 우리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수련회였다.

#### <민족공동행사-여성통일 한마당>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여성통일 한마당이다. 이번 통일대축전 역시 그러했지만 규모면에서 상당히 크게 치러졌다. 여성운동을 하는 많은 단체와 사람이 참여하였다. 이번 통일 대 축전을 보면서 운동대중화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면서 여학생 운동, 여성운동도 규모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질 적측면에서 우리 여학생운동을 하는 이들이 많이 담보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여성주간>

일년을 총화하는 여학우들의 대동의 장으로서 하반기에 진행되었다. '난 여자라서 좋아'라는 모토속에서 여성주간이 3일동안의 행사로 기획되었다. 실질적인 행사는 하루동안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남학우 과일깎기, 여학우 팔씨름 대회, 여성문화제, 여성가요제를 진행하면서 민족동아 1만 여학우와 더불어 1만 8천 학우들, 시민들과 대중적 으로 성사해냈다. 여성주간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이고 이벤트적인 행사로만이 아니라, 여학우 대중을 좀더 주체적으로 세워낼 데 대한 고민을 더 깊게 해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7기 전여대협 평가 설문지

## 0. 들어가며

평가를 잘 하는 것은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평가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점을 혁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내일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명확한 평가는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성민중의 요구대로 정세의 요구대로 자주로운 새 세기를 열어나가자.' 고 하였던 우리의 기치가 어떠한지 각 단위에서 벌인 것과 7기 전여대협 차원으로 진행했던 것 모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려 합니다. 상세하게 많은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총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올해 핵심적인 여성정세는 무엇이였을까요?

## 2. 사업과 투쟁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봅시다.

### ▶대중투쟁

#### 1)6.15 이행 투쟁

전여대협에서는 공동선언 발표 이후 여성들 또한 공동선언 이행 투쟁에 나섬으로써 여성해방과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위원회를 꾸리고 6.15에 대한 의식화 사업, 여성단체들과 함께 한 6.15 이행 토론회, 그리고 통일주점, 금강산에서 남과 북이 만나 벌인 6.15 이행 토론회와 8.15 때 전여대협 대표가 방북했던 일, 2001 민족통일대추전 여성한마당, 자주교류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업을 벌여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봅시다. 그리고 이후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적어봅시다.

#### 2)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일본의 역사 왜곡 저지 투쟁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집회에 참여하고 학교별 수요집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인 역사 왜곡 사태에 분노하여 온라인 시위, 1인 시위, 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벌여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봅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이후에 어떻게 벌여나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함께 적어봅시다.

#### 3)기지촌 문제 미군범죄 문제 해결과 반미투쟁 관련

기지촌 활동을 하고 새움터 후원사업을 벌이는 등으로 기지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주관을 설정하고 추모사업과 의식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반미투쟁을 했습니다. 6/23 국제전법 재판에 전여대협 대표를 파견하였으며 7/25 명동에서 자체적인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관련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고민을 적어봅시다.

#### 4)반기부장제 투쟁

반성폭력 운동, 성매매 반대 투쟁, 호주제 폐지, 평등 문화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과 방도로 반기부장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활동에 대한 고민을 적어봅시다.

#### 5)여성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

모성보호법 관련 투쟁과 농활 등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쟁취 투쟁에 대한 평가와 여학우들의 취업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봅시다.

### ▶대중사업

#### 1)겨울 일꾼 전진대회

#### 2)한총련 대대 여학일꾼 마당 평가

#### 3)총회

#### 4)출범식

#### 5)여름수련회 평가

#### 6)기타

## ▶전반 성과 한계 과제

## 3. 사상생활

학습 진행 형태 및 내용을 총화해주세요!!

올해 저어른 정립을 위한 토론 과정에서의 성과 한계 지점 등이 있다면

## 4. 조직생활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였습니다(조종례, 주총화, 월총화 등, 기본내용을 적어주세요)?

## 5. 총여학생회 대의체계 관련 평가

총여 증운위 혹은 총화 증운위 참여 과정 평가

여학우 총회, 여학생 대표자회의 등 총화

기타

## 6. 일꾼 재생산 과정 평가 - 계획과 실천 과정에 대한 총화를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소모임 운영

새내기 사업 등

## 7. 전여대협 사업계획 수립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

정세와 기층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되었습니까?

기층 의견수렴이 어떠한다고 생각됩니까? 이후 바라는 점이라면

전여대협 사업계획이 단위에서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나서는 어려움이 있다면

## 8. 상강간부의 지도사업 평가

성과 한계 요구지점 혁신지점

## 9. 여학생 운동대중화 평가

대중의, 조직화, 투쟁 과정에서 전반 여학생 운동대중화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 10. 총여학생회 조직적으로 올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까? 평가를 했다면 평가 내용을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7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